

#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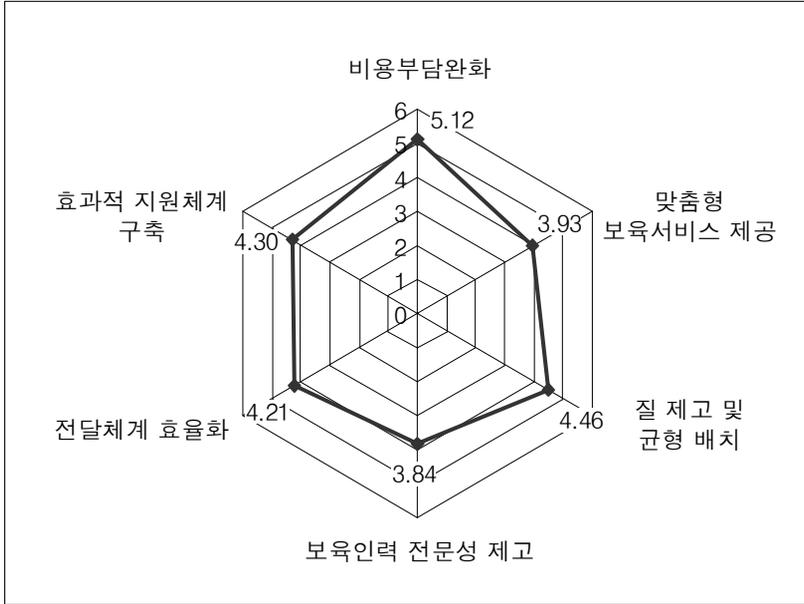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 <그림>은 보육 관련 6대 과제별 성과 점수 및 추진 필요성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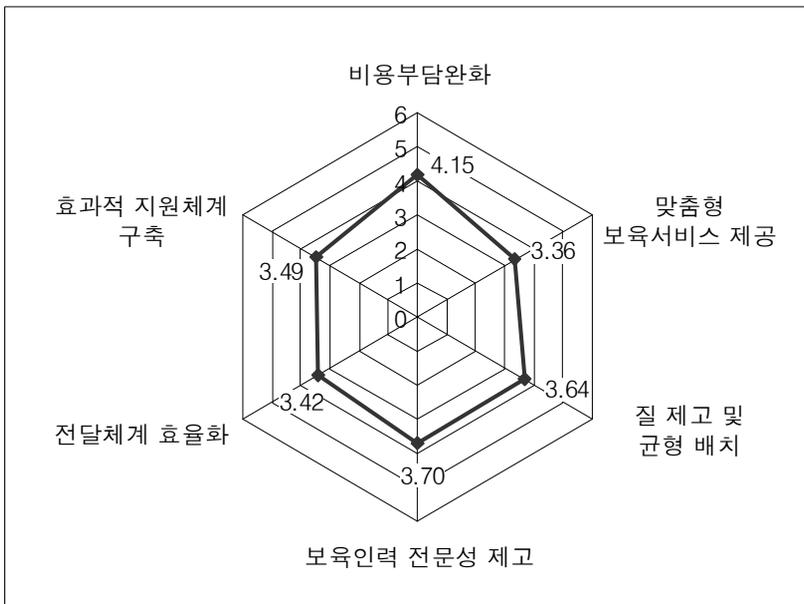
<그림 1> 보육 관련 6대 과제별 성과 점수

(단위: 점)



<그림 2> 보육 관련 6대 과제별 추진 필요성 점수

(단위: 점)



<보 기>

- ㄱ. 성과 점수가 가장 높은 과제와 가장 낮은 과제의 점수 차이는 1.00점보다 크다.
- ㄴ. 성과 점수와 추진 필요성 점수의 차이가 가장 작은 과제는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과제이다.
- ㄷ. 6대 과제의 추진 필요성 점수 평균은 3.70점 이상이다.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ㄷ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성과 점수 <그림1>의 최고점 = 5.12, 최저점 = 3.84

→ 1점 이상 차이가 난다. → 옳다.

①, ④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계산의 2단계)

<그림1>과 <그림2>의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3.84-3.7 = 0.14)가 맞다.

옳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평균)

<그림2>의 경우 3.7에서 넘치는 것이 1개뿐이다.

이것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충분하지 않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2. 다음 <표>는 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사건처리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행정심판위원회 연도별 사건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접수	심리.의결				취하.이송
		인용	기각	각하	소계	
2010	31,473	4,990	24,320	1,162	30,472	1,001
2011	29,986	4,640	23,284	( )	28,923	1,063
2012	26,002	3,983	19,974	1,030	24,987	1,015
2013	26,255	4,713	18,334	1,358	24,405	1,850
2014	26,014	4,131	19,164	( )	25,270	744

※ 1) 당해연도에 접수된 사건은 당해연도에 심리.의결 또는 취하.이송됨.

2) 인용률(%) =  $\frac{\text{인용건수}}{\text{심리} \cdot \text{의결 건수}} \times 100$

<보 기>

- ㄱ. 인용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3년이다.
- ㄴ. 취하.이송 건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 ㄷ. 각하 건수가 가장 적은 해는 2011년이다.
- ㄹ. 접수 건수와 심리.의결 건수의 연도별 증감방향은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접수 = 심리의결 + 취하이송

심리의결 = 인용 + 기각 + 각하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인용률 =  $\frac{\text{인용}}{\text{전체}}$  2013( $\frac{3983}{24987} > 2$ ) → 가장 크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ㄴ (단순 확인)

접수건수의 증감방향 = 감 감 증 감

심리의결건수의 증감 = 감 감 감 증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취하이송의 경우 매년 감소하지 않았다

2010(1,001) → 2011(1,063) 증가하였다.

①번 선지 소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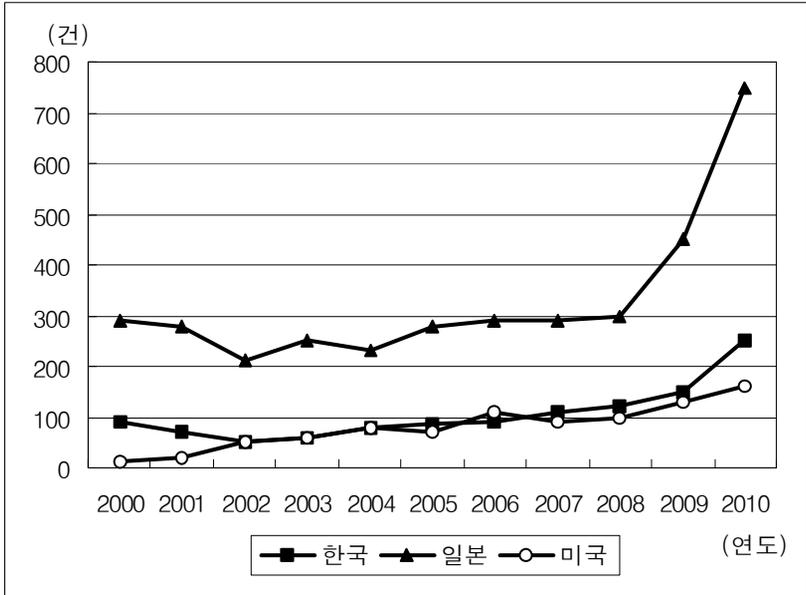
답 : ②

문 3. 다음 <표>와 <그림>은 2000 ~ 2010년 3개국(한국, 일본, 미국)의 3D 입체영상 및 CG 분야 특허출원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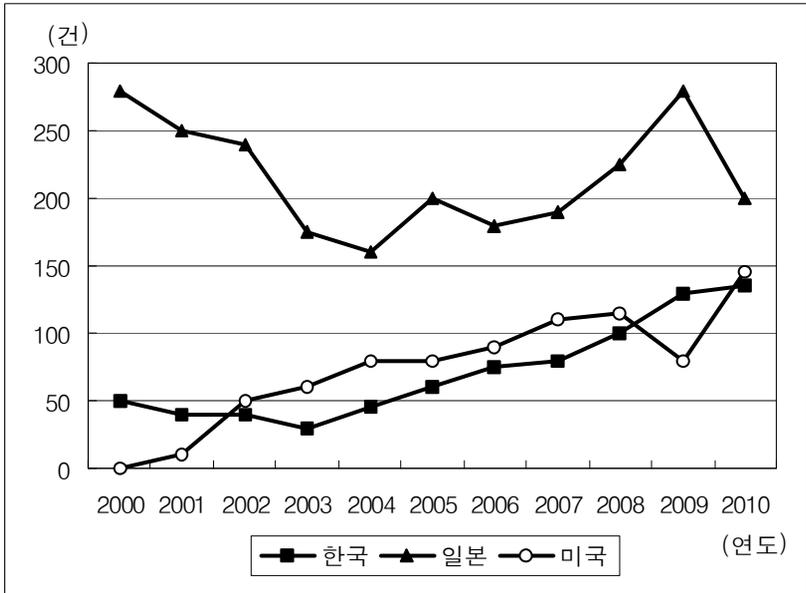
<표> 2000 ~ 2010년 3개국 3D 입체영상 및 CG 분야 특허출원 현황  
(단위: 건)

국가 \ 분야	3D 입체영상	CG
한국	1,155	785
일본	3,620	2,380
미국	880	820
3개국 전체	5,655	3,985

<그림 1> 연도별 3D 입체영상 분야 3개국 특허출원 추이



<그림 2> 연도별 CG 분야 3개국 특허출원 추이



<보고서>

3D 입체영상 및 CG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 경쟁은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본이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 3D 입체영상 분야의 경우 2000 ~ 2010년 일본 특허출원 건수는 3개국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한국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 3D 입체영상 분야에서 2007 ~ 2010년 동안 한국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미국 특허출원 건수를 초과하였다.

CG 분야에서도, 2000 ~ 2010년 3개국 전체 특허출원 건수대비 일본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3년 이후 CG 분야에서 한국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미국 특허출원 건수보다 적지만,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 2000 ~ 2010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CG 분야 특허출원 건수의 차이는 2010년에 가장 작았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다, 라
- ④ 가, 나, 라
- ⑤ 나, 다, 라

<문제 유형>

일반 형(㉠~㉣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에는 합계가 있다.  
<그림1>과 <그림2>의 전체 합계 <표>에 있다.

<관점의 적용>

보기 가 (계산이 아닌 가공)

$$\text{일본의 비중} = \frac{3620}{5655} = \frac{3,000 + 620}{5,000 + 655} > 60\% \text{ 옳다.}$$

-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라

보기 라 (단순 확인)

<그림2>에서 ■와 ▲의 차이 가장 적은 것은 2010년이다.  
옳다.

- ①,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나, 보기 다중 선택

답 : ④

문 4. 다음 <표>는 2005 ~ 2012년 A기업의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05 ~ 2012년 A기업의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  
(단위 : 백만원)

콘텐츠 유형 연도	게임	음원	영화	SNS	전체
2005	235	108	371	30	744
2006	144	175	355	45	719
2007	178	186	391	42	797
2008	269	184	508	59	1,020
2009	485	199	758	58	1,500
2010	470	302	1,031	308	2,111
2011	603	411	1,148	104	2,266
2012	689	419	1,510	341	2,959

- ① 2007년 이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콘텐츠 유형은 영화뿐이다.
- ② 2012년에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큰 콘텐츠 유형은 SNS이다.
- ③ 영화 매출액은 매년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이다.
- ④ 2006 ~ 2012년 동안 콘텐츠 유형별 매출액이 각각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해는 2012년뿐이다.
- ⑤ 2009 ~ 2012년 동안 매년 게임 매출액은 음원 매출액의 2배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2007년 이후 영화는 매년 증가하였다. → 옳다.

보기 ② (올올올-1)

SNS의 증가율 =  $\frac{341}{104}$  → 2가 넘는다.

보기 ③ (비중)

$\frac{\text{영화}}{\text{전체}}$  모두 40% 이상이다.

(※ 만약에 잘 안보인다면 ×4를 외우자)

보기 ④ (단순 확인)

모든 콘텐츠에서 증가한 건 2012년뿐이다.

07년은 SNS가 감소

08년은 음원이 감소

09년은 SNS가 감소

10년은 게임이 감소

11년은 SNS가 감소

(※ 굳이 풀어야 할까?)

답 : ⑤

문 5. 다음 <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A ~ D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아래의 <지급 방식>에 따라 가입자 A ~ D가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을 때, 탄소포인트를 가장 많이 지급받는 가입자와 가장 적게 지급받는 가입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가입자 A ~ D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 현황  
(단위 : %)

에너지 사용유형 \ 가입자	A	B	C	D
전기	2.9	15.0	14.3	6.3
수도	16.0	15.0	5.7	21.1
가스	28.6	26.1	11.1	5.9

<지급 방식>

○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단위 : 포인트)

에너지 사용유형 \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전기	0	5,000	10,000
수도	0	1,250	2,500
가스	0	2,500	5,000

○ 가입자가 지급받는 탄소포인트

= 전기 탄소포인트 + 수도 탄소포인트 + 가스 탄소포인트

예) 가입자 D가 지급받는 탄소포인트

= 5,000 + 2,500 + 2,500 = 10,000

가장 많이 지급받는 가입자    가장 적게 지급받는 가입자

- |   |   |   |
|---|---|---|
| ① | B | A |
| ② | B | C |
| ③ | B | D |
| ④ | C | A |
| ⑤ | C | D |

<문제 유형>

매칭형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탄소포인트를 높게 받으려면?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관점의 적용>

에너지 사용유형 \ 가입자	A	B	C	D
전기	0	15.0	14.3	6.3
수도	16.0	15.0	5.7	21.1
가스	28.6	26.1	11.1	5.9

전기가 10%이상인곳을 나머지가 이길수 없다.

즉 B와 C만 비교 B의 경우 모두 10을 넘는다

→ 가장 많이 받는건 B

A와 D를 비교하자

수도의 경우 A와 D는 공통이다. 소거한다.

D의 경우 전기와 가스가 5%를 초과한다.

A의 경우 가스만 10%를 초과한다.

→ A가 더 작다.

답 : ①

문 6. 다음 <표>는 A, B, C 세 구역으로 구성된 '갑'시 거주구역별, 성별 인구분포에 관한 자료이다. '갑'시의 남성 인구는 200명, 여성 인구는 300명일 때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시 거주구역별, 성별 인구분포

(단위: %)

거주구역 성별	A	B	C	합
남성	15	55	30	100
여성	42	30	28	100

<보 기>

- ㄱ. A구역 남성 인구는 B구역 여성 인구의 절반이다.
- ㄴ. C구역 인구보다 A구역 인구가 더 많다.
- ㄷ. C구역은 여성 인구보다 남성 인구가 더 많다.
- ㄹ. B구역 남성 인구의 절반이 C구역으로 이주하더라도, C 구역 인구는 '갑'시 전체 인구의 40% 이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남성 = 200명, 여성 = 300명  
→ 분모동일 방향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A구역의 남성 = 15%

B구역의 여성 = 30%

분모동일 방향이 아닌데 30%만 보면 당연히 틀린다.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공통과 차이)

C구역 인구 = 남자 30%, 여자 28%

A구역 인구 = 남자 15%, 여자 42%

남자 15%가 여자 14%보다 많은가?

아니다. 여자 14%가 더 많다. → A구역이 더 많다. →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C구역 인구 = 남자 30%, 여자 28%

남자 =  $30 \times 200$

여자 =  $28 \times 300$

→ 여자가 더 많다. →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7. 다음 <표>는 '갑'국의 2013년 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록노인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록노인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지역	복지종합 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등록노인
A	20	1,336	8,252	397,656
B	2	126	878	45,113
C	1	121	970	51,476
D	2	208	1,388	69,395
E	1	164	1,188	59,050
F	1	122	1,032	56,334
G	2	227	1,501	73,825
H	3	362	2,185	106,745
I	1	60	529	27,256
전국	69	4,377	30,171	1,486,980

<보 기>

- ㄱ. 전국의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중 A지역의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의 비중은 각각 25% 이상이다.
- ㄴ. A ~ I지역 중 복지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노인복지관 수가 100개소 이하인 지역은 A, B, D, I이다.
- ㄷ. A ~ I지역 중 복지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복지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등록노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일하다.
- ㄹ. 노인복지관 1개소당 자원봉사자 수는 H지역이 C지역보다 많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져 있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비중)

A의 경우 모두 전체의 25%이상이다.

4배를 기준으로 보자

→ 만약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가중평균의 응용-2

$$\text{등록노인} = \frac{397,656}{1,486,980} = \frac{400,000 - 2,344}{1,600,000 - 113,020}$$

$$\frac{2,344}{113,020} < 25\% \rightarrow \text{모두 25\%이상이다.} \rightarrow \text{옳다.}$$

④,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100개소 이하다. → 복지종합지원센터 × 100 > 노인복지관

D의 경우 200 < 208 이다. →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frac{\text{자원봉사자}}{\text{노인복지관}}$$

$$H\left(\frac{2185}{362}\right), C\left(\frac{970}{121}\right)$$

$$\rightarrow C\text{가 크다. } H\left(\frac{2100+85}{300+62} < 7\right) C\left(\frac{700+270}{100+21} > 7\right)$$

옳지 않다.

(※ 안보이면 가공하자.)

③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8. 다음 <표>는 '갑'국의 8개국 대상 해외직구 반입동향을 나타낸 자료이다. 다음 <조건>의 설명에 근거하여 <표>의 A ~ D에 해당하는 국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갑'국의 8개국 대상 해외직구 반입동향  
(단위 : 건, 천달러)

연도	반입 방법 국가	목록통관		EDI 수입		전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미국	3,254,813	305,070	5,149,901	474,807	8,404,714	779,877
	중국	119,930	6,162	1,179,373	102,315	1,299,303	108,477
	독일	71,687	3,104	418,403	37,780	490,090	40,884
	영국	82,584	4,893	123,001	24,806	205,585	29,699
	프랑스	172,448	6,385	118,721	20,646	291,169	27,031
	일본	53,055	2,755	138,034	21,028	191,089	23,783
	뉴질랜드	161	4	90,330	4,082	90,491	4,086
	호주	215	14	28,176	2,521	28,391	2,535
2014	미국	5,659,107	526,546	5,753,634	595,206	11,412,741	1,121,752
	(A)	170,683	7,798	1,526,315	156,352	1,696,998	164,150
	독일	170,475	7,662	668,993	72,509	839,468	80,171
	프랑스	231,857	8,483	336,371	47,456	568,228	55,939
	(B)	149,473	7,874	215,602	35,326	365,075	43,200
	(C)	87,396	5,429	131,993	36,963	219,389	42,392
	뉴질랜드	504	16	108,282	5,283	108,786	5,299
	(D)	2,089	92	46,330	3,772	48,419	3,864

<조 건>

- 2014년 중국 대상 해외직구 반입 전체 금액은 같은 해 독일 대상 해외직구 반입 전체 금액의 2배 이상이다.
- 2014년 영국과 호주 대상 EDI 수입 건수 합은 같은 해 뉴질랜드 대상 EDI 수입 건수의 2배보다 작다.
- 2014년 호주 대상 해외직구 반입 전체 금액은 2013년 호주 대상 해외직구 반입 전체 금액의 10배 미만이다.
- 2014년 일본 대상 목록통관 금액은 2013년 일본 대상 목록통관 금액의 2배 이상이다.

- |   |    |    |    |    |
|---|----|----|----|----|
|   | A  | B  | C  | D  |
| ① | 중국 | 일본 | 영국 | 호주 |
| ② | 중국 | 일본 | 호주 | 영국 |
| ③ | 중국 | 영국 | 일본 | 호주 |
| ④ | 일본 | 영국 | 중국 | 호주 |
| ⑤ | 일본 | 중국 | 호주 | 영국 |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짐

<관점의 적용>

조건 ①

중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2배이상이다  
독일 = 80,171이므로, 중국은 가장 큰 A이다.  
→ ④, ⑤번 선지소거

조건 ②

영국 + 호주의 EDI은 뉴질랜드의 2배보다 작다.  
뉴질랜드 = EDI수입건수 = 10만  
즉, 영국 + 호주 = C + D  
→ ③번 선지 소거

조건 ③

호주의 경우 2013년의 반입 전체금액의 10배 미만이다.  
2,535의 10배미만 = D이다.  
→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9. 다음 <표>는 로봇 시장현황과 R&D 예산의 분야별 구성비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용도별 로봇 시장현황(2013년)

용도 \ 구분	시장규모 (백만달러)	수량 (천개)	평균단가 (천달러/개)
제조용	9,719	178	54.6
전문 서비스용	3,340	21	159.0
개인 서비스용	1,941	4,000	0.5
전체	15,000	4,199	3.6

<표 2> 분야별 로봇 시장규모(2011 ~ 2013년)

(단위 : 백만달러)

용도	분야	연도		
		2011	2012	2013
제조용	제조	8,926	9,453	9,719
전문 서비스용	건설	879	847	883
	물류	166	196	216
	의료	1,356	1,499	1,449
	국방	748	818	792
개인 서비스용	가사	454	697	799
	여가	166	524	911
	교육	436	279	231

\* 로봇의 용도 및 분야는 중복되지 않음.

<표 3> 로봇 R&D 예산의 분야별 구성비(2013년)

(단위 : %)

분야	제조	건설	물류	의료	국방	가사	여가	교육	합계
구성비	21	13	3	22	12	12	14	3	100

<보 기>

- ㄱ. 2013년 전체 로봇 시장규모 대비 제조용 로봇 시장규모의 비중은 70% 이상이다.
- ㄴ. 2013년 전문 서비스용 로봇 평균단가는 제조용 로봇 평균단가의 3배 이하이다.
- ㄷ. 2013년 전체 로봇 R&D 예산 대비 전문 서비스용 로봇 R&D 예산의 비중은 50%이다.
- ㄹ.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규모는 각 분야에서 매년 증가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의 전체가 주어졌다  
<표2>의 2013년 소계는 <표1>에 주어졌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2013년 제조용 로봇 규모 비중

$$= \frac{9719}{15000} = \frac{7,000 + 2,719}{10,000 + 5,000} < 70\%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2013년 \frac{\text{전문서비스}}{\text{제조용}} = \frac{159}{54.6} = \frac{150 + 9}{50 + 4.6} < 3$$

→ 3배 이하다 →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ㄹ (단순 확인)

교육의 경우 2012(279) → 2013(231)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답 : ③

문 10. 다음 <표>는 A발전회사의 연도별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A발전회사의 연도별 발전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발전량(GWh)			55,000	51,000	52,000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율(%)		1.4	2.0	3.0
	자체공급량(GWh)		75	380	690
	인증서구입량(GWh)		15	70	160

- ※ 1) 공급의무율(%) =  $\frac{\text{공급의무량}}{\text{발전량}} \times 100$   
 2) 이행량(GWh) = 자체공급량 + 인증서구입량

<보 기>

- ㄱ. 공급의무량은 매년 증가한다.  
 ㄴ. 2012년 대비 2014년 자체공급량의 증가율은 2012년 대비 2014년 인증서구입량의 증가율보다 작다.  
 ㄷ. 공급의무량과 이행량의 차이는 매년 증가한다.  
 ㄹ. 이행량에서 자체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공급의무량 = 발전량 × 공급의무율  
 이행량 = 자체공급량 + 인증서 구입량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공급의무량 = 발전량 × 공급의무율

2012 → 2013

$55,000 \times 1.4$  VS  $51,000 \times 2.0$  → 사각 테크닉

$4 \times 14$  VS  $51 \times 6$  → 2013년이 더 높다.

2013 → 2014 → 발전량과 공급의무율이 더크다.

2014년이 더 높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계산이 아닌 가공)

이행량중 자체공급량 비중 =  $\frac{\text{자체공급량}}{\text{이행량}} \rightarrow \frac{\text{자체공급량}}{\text{인증서 구입량}}$

$2012(\frac{75}{15}) \rightarrow 2013(\frac{380}{70}) \rightarrow 2014(\frac{690}{160})$

2013 → 2014 감소하였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계산이 아닌 가공)

공급의무량의 증가량

= 보기 ㄱ에서 사용한 사각테크닉을 이용하자

공급의무량 2012 → 2013년 증가량

$\rightarrow 51 \times 6 - 4 \times 14 = 306 - 56 = 250$

이행량 2012 → 2013년 증가량

$75+15 \rightarrow 380+70 = 250$ 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행량의 증가량이 더크다. 고로 차이는 감소한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문 11. 다음 <표>는 2012년 지역별 PC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2년 지역별 PC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률  
(단위: %)

지역 \ 구분	PC 보유율	인터넷 이용률
서울	88.4	80.9
부산	84.6	75.8
대구	81.8	75.9
인천	87.0	81.7
광주	84.8	81.0
대전	85.3	80.4
울산	88.1	85.0
세종	86.0	80.7
경기	86.3	82.9
강원	77.3	71.2
충북	76.5	72.1
충남	69.9	69.7
전북	71.8	72.2
전남	66.7	67.8
경북	68.8	68.4
경남	72.0	72.5
제주	77.3	73.6

<보 기>

- ㄱ. PC 보유율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은 인터넷 이용률도 네 번째로 높다.
- ㄴ. 경남보다 PC 보유율이 낮은 지역의 인터넷 이용률은 모두 경남의 인터넷 이용률보다 낮다.
- ㄷ. 울산의 인터넷 이용률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의 1.3배 이상이다.
- ㄹ. PC 보유율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전북, 전남, 경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PC보유율이 4번째로 높은 지역 = 경기  
 인터넷이용률이 4번째로 높은 지역 = 경기  
 인터넷이용률이 4번째로 높은 지역 ≠ 경기  
 옳지 않다.

①, ②, ③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울산의 인터넷 이용률은 가장낮은 지역(전남) 보다 1.3배이상  
 $\frac{85.0}{67.8} = \frac{65+20}{50+17.8} < 1.3 \rightarrow$  옳지 않다.  
 4일의 경우 10,000보 이상 걸었으나 섭취칼로리가 2,350이다.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12. 사무관 A는 다음 <표>와 추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논문 발표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표> 우리나라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현황

(단위: 편,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발표수	29,565	34,353	37,742	41,481	45,588	49,374	51,051
세계 점유율	2.23	2.40	2.50	2.62	2.68	2.75	2.77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우리나라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는 51,051편으로 전년대비 약 3.40% 증가했다. 우리나라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의 세계 점유율은 2007년 2.23%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3년 2.77%가 되었다. 이는 2007년 이후 기초·원천기술연구에 대한 투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는 4.55회로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 상위 50개 국가 중 32위를 기록했다.

<보 기>

- ㄱ.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기초·원천기술연구 투자규모 현황
- ㄴ. 2009 ~ 2013년 연도별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 상위 50개 국가의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 ㄷ. 2007년 이후 세계 총 SCI 과학기술 학술지 수
- ㄹ. 2009 ~ 2013년 우리나라 SCI 과학기술 논문 발표수의 전년대비 증가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필요 형

-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표> = 한국의 SCI발표수와 세계의 SCI발표수

<관점의 적용>

이미 주어진 정보 = 보기 ㄷ, 보기 ㄹ  
→ ②, ③, ④, ⑤번 선지 소거

답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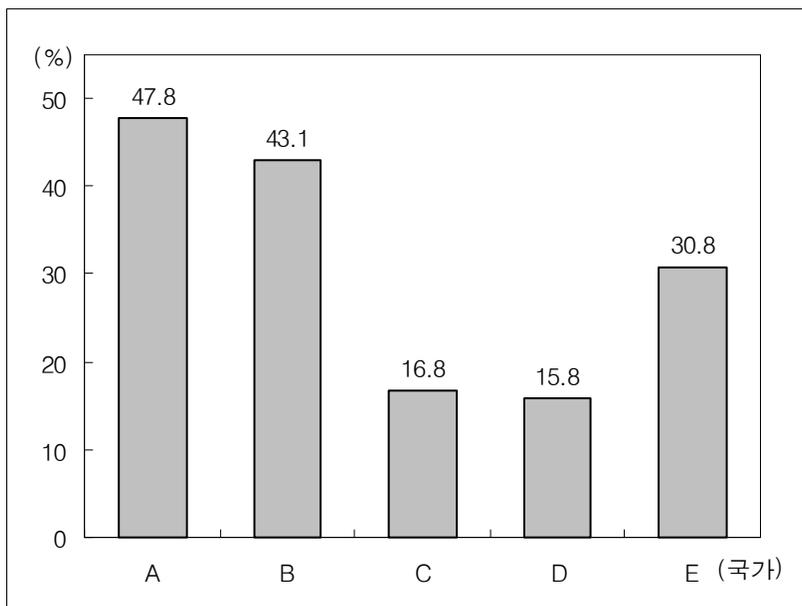
문 13. 다음 <표>와 <그림>은 A ~ E국의 국민부담률, 재정적자 비율 및 잠재적부담률과 공채의존도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국민부담률, 재정적자 비율 및 잠재적부담률  
(단위: %)

구분 \ 국가	A	B	C	D	E
국민부담률	38.9	34.7	49.3	( )	62.4
사회보장부담률	( )	8.6	10.8	22.9	24.6
조세부담률	23.0	26.1	( )	29.1	37.8
재정적자 비율	8.8	9.9	6.7	1.1	5.1
잠재적부담률	47.7	( )	56.0	53.1	( )

- \* 1) 국민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부담률  
2) 잠재적부담률(%) = 국민부담률 + 재정적자 비율

<그림> 공채의존도



<보 기>

- ㄱ. 잠재적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다.  
 ㄴ. 공채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의 국민부담률이 두 번째로 높다.  
 ㄷ. 사회보장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의 공채의존도가 가장 높다.  
 ㄹ. 잠재적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B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

국민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부담률  
 잠재적 부담률 = 국민부담률 + 재정적자 비율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의 2단계)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 = E or C

C의 경우 38이 넘는다. C가 가장 높다

C의 잠재적 부담률(56.0)도 가장 높은가?

아니다. E(62.4+5.1)가 더 높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ㄴ (계산의 2단계)

공채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 = D

국민 부담률은 2번째인가?

D의 국민부담률 = 22.9+29.1 = 50 ↑

2번째이다. 옳다.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ㄷ, 보기 ㄹ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공채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 A

A의 사회보장부담률이 가장 높은가?

38.9-23 = 15.9 → 가장 높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14. 다음 <표>는 2013년 A시 '가' ~ '다' 지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2013년 A시 '가' ~ '다' 지역의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월	지역	가	나	다
1		100.0	100.0	100.0
2		101.1	101.6	99.9
3		101.9	103.2	100.0
4		102.6	104.5	99.8
5		103.0	105.5	99.6
6		103.8	106.1	100.6
7		104.0	106.6	100.4
8		105.1	108.3	101.3
9		106.3	110.7	101.9
10		110.0	116.9	102.4
11		113.7	123.2	103.0
12		114.8	126.3	102.6

※ N월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frac{\text{해당 지역의 N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text{해당 지역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times 100$

- ① '가' 지역의 12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다' 지역의 12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높다.
- ② '나'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다른 두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매월 높다.
- ③ '다' 지역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3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같다.
- ④ '가' 지역의 1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억원이면 '가' 지역의 7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억 4천만원이다.
- ⑤ 2013년 7 ~ 12월 동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각 지역에서 매월 상승하였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지수이다. 분모동일방향 ↓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분모동일 방향이 아니다. 비교 불가하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단순 확인)

분모동일 방향이 아니다. 비교 불가하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단순 확인)

분모동일 방향이다.

1월과 3월의 지수가 같다. 가격이 동일하다. → 옳지 않다.

답 : ③

6711, 1599-8000, 032-327-8023

문 15. 다음 <표>는 쥐 A ~ E의 에탄올 주입량별 렘(REM)수면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에탄올 주입량별 쥐의 렘수면시간

(단위: 분)

에탄올 주입량(g) \ 쥐	A	B	C	D	E
0.0	88	73	91	68	75
1.0	64	54	70	50	72
2.0	45	60	40	56	39
4.0	31	40	46	24	24

<보 기>

- ㄱ. 에탄올 주입량이 0.0 g일 때 쥐 A ~ E 렘수면시간 평균은 에탄올 주입량이 4.0 g일 때 쥐 A ~ E 렘수면시간 평균의 2배 이상이다.
- ㄴ. 에탄올 주입량이 2.0 g일 때 쥐 B와 쥐 E의 렘수면시간 차이는 20분 이하이다.
- ㄷ. 에탄올 주입량이 0.0 g일 때와 에탄올 주입량이 1.0 g일 때의 렘수면시간 차이가 가장 큰 쥐는 A이다.
- ㄹ. 쥐 A ~ E는 각각 에탄올 주입량이 많을수록 렘수면시간이 감소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보기 ㄱ (평균)

0.0g일 때 평균 수면 시간

4.0g일 때 평균 수면 시간

항목의 개수가 같으므로, 평균값을 직접 구할 필요는 없다.

4.0g에 2배를 한후, A와 비교한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 줄 수 있는지 생각하자

B의 경우 4.0g의 2배가 80인데, 이 경우 0.0과 비교하면 7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A의 경우 62이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 이것을 B에다가 옮겨줘서 채움을 확인하자. → 옳다.

③, ④,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에탄올 2.0g 일 때, 쥐 B = 60분, 쥐 D = 39분

→ 20분 이상 차이가 난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6. 다음 <표>는 2004 ~ 2013년 5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금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5개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금액

(단위 : 억원)

연도 유형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태풍	3,416	1,385	118	1,609	9	0	1,725	2,183	8,765	17
호우	2,150	3,520	19,063	435	581	2,549	1,808	5,276	384	1,581
대설	6,739	5,500	52	74	36	128	663	480	204	113
강풍	0	93	140	69	11	70	2	0	267	9
풍랑	0	0	57	331	0	241	70	3	0	0
전체	12,305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9,620	1,720

<보 기>

- ㄱ. 2004 ~ 2013년 강풍 피해금액 합계는 풍랑 피해금액 합계보다 작다.
- ㄴ. 2012년 태풍 피해금액은 2012년 5개 자연재해 유형 전체 피해금액의 90 % 이상이다.
- ㄷ. 피해금액이 매년 10억원보다 큰 자연재해 유형은 호우 뿐이다.
- ㄹ. 피해금액이 큰 자연재해 유형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0년과 2011년의 순서는 동일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강풍의 피해금액의 합계 =  $93+140+69+11+70+2+267+9 = 661$

풍랑의 피해금액의 합계 =  $57+331+241+70+3 = 702$

강풍이 더 작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순위)

피해금액순위

2010년 = 호우 태풍 대설 풍랑 강풍

2011년 = 호우 태풍 대설 풍랑 강풍

→ 옳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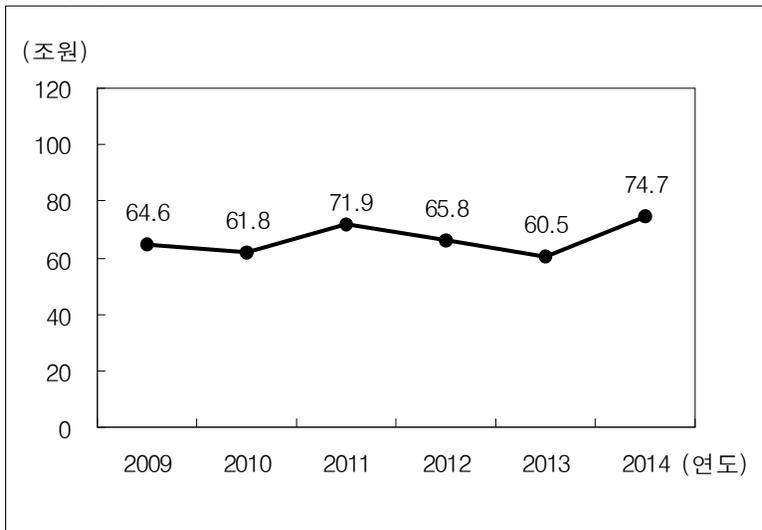
문 17. 다음 <표>는 2009 ~ 2014년 건설공사 공종별 수주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건설공사 공종별 수주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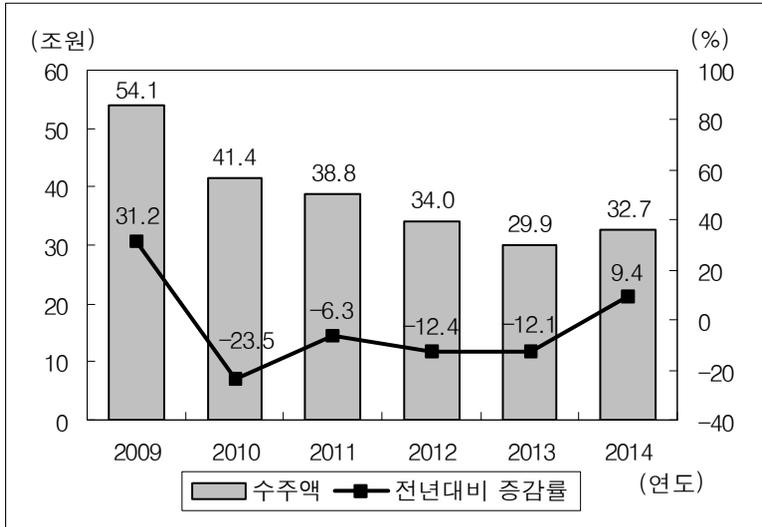
(단위 : 조원, %)

구분 연도	전체	전년대비 증감률	토목	전년대비 증감률	건축	전년대비 증감률	주거용	비주거용
2009	118.7	-1.1	54.1	31.2	64.6	-18.1	39.1	25.5
2010	103.2	-13.1	41.4	-23.5	61.8	-4.3	31.6	30.2
2011	110.7	7.3	38.8	-6.3	71.9	16.3	38.7	33.2
2012	99.8	-9.8	34.0	-12.4	65.8	-8.5	34.3	31.5
2013	90.4	-9.4	29.9	-12.1	60.5	-8.1	29.3	31.2
2014	107.4	18.8	32.7	9.4	74.7	23.5	41.1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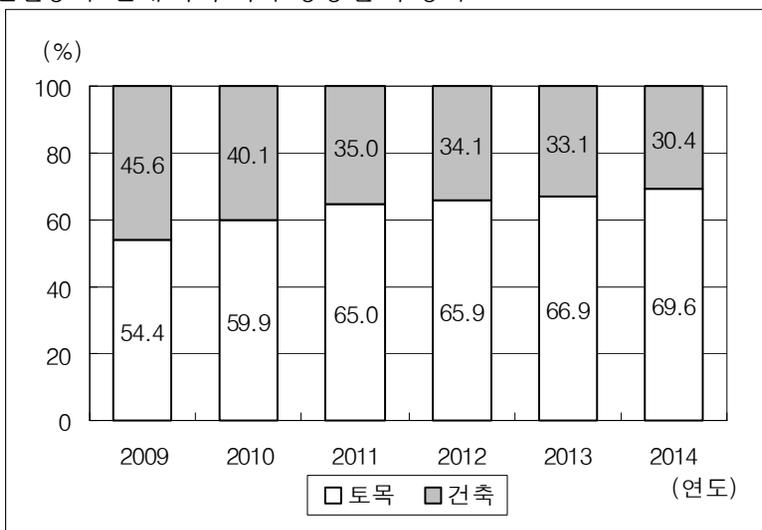
① 건축 공종의 수주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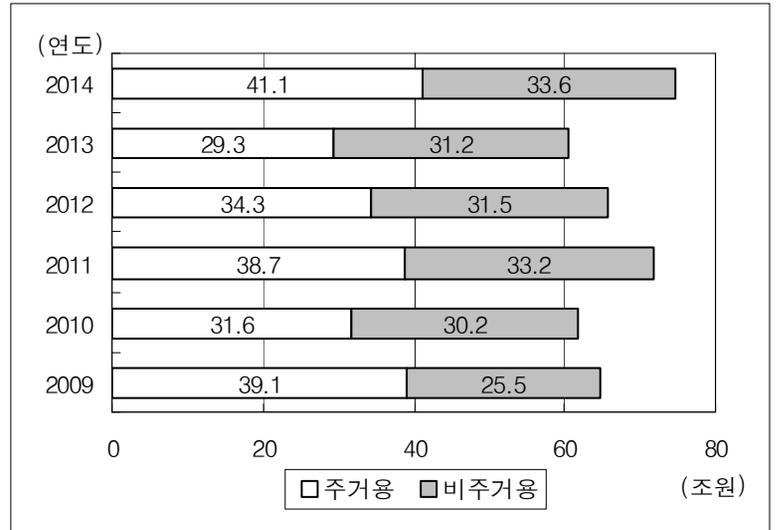
② 토목 공종의 수주액 및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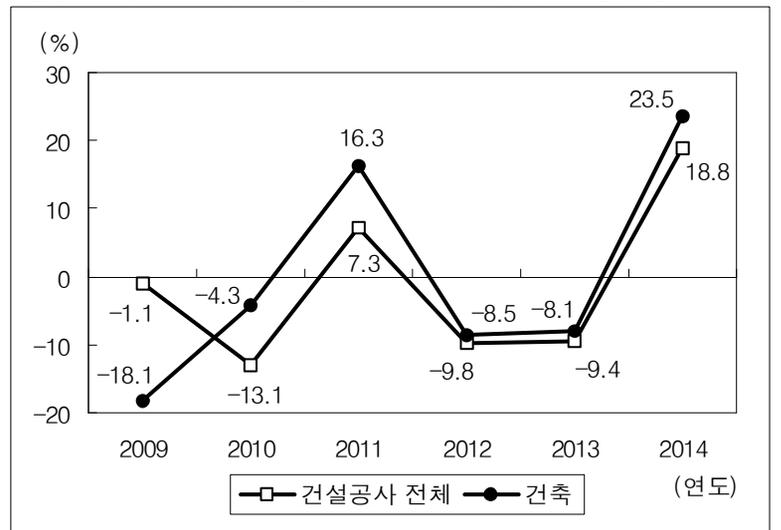
③ 건설공사 전체 수주액의 공종별 구성비



④ 건축 공종 중 주거용 및 비주거용 수주액



⑤ 건설공사 전체 및 건축 공종 수주액의 전년대비 증감률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전체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③

구성비 = 분모동일이다.

차트에서는 토목이 건축보다 크다.

그런데 표는 건축이 토목보다 크다.

→ 옳지 않다.

답 : ③

문 18. 다음 <표>는 2010 ~ 2014년 A시의회의 발의 주체별 조례발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A시의회 발의 주체별 조례발의 현황

(단위: 건)

연도 \ 발의 주체	단체장	의원	주민	합
2010	527	( )	23	924
2011	( )	486	35	1,149
2012	751	626	39	( )
2013	828	804	51	1,683
2014	905	865	( )	1,824
전체	3,639	3,155	202	( )

\* 조례발의 주체는 단체장, 의원, 주민으로만 구성됨.

- ① 2012년 조례발의 건수 중 단체장발의 건수가 50% 이상이다.
- ② 2011년 단체장발의 건수는 2013년 의원발의 건수보다 적다.
- ③ 주민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④ 2014년 의원발의 건수는 2010년과 2011년 의원발의 건수의 합보다 많다.
- ⑤ 2014년 조례발의 건수는 2012년 조례발의 건수의 1.5배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합과 계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비중)

단체장의 건수가 50%이상이다. = 의원과 주민은 50%이하다.  
= 단체장 > 의원과 주민이다.

2012년 = 단체장과 의원+주민의 비교 → 단체장이 더 많다.  
→ 옳다.

(※ 다른 비교 방법도 있다.)

(2010년 = 단체장과 합계의 비교

2011년 = 의원+주민과 합계의 비교

2013년 = 단체장 < 의원+주민의 비교)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2011년 단체장 = 1,149-486-35 = 628

2013년 의원 = 804

→ 단체장이 더 적다. → 옳다.

보기 ③

2014년 주민발의 = 1824 - 905 - 865 = 54

→ 주민은 매년 증가하였다. → 옳다.

보기 ④

2014년 의원발의 건수 = 865

2010년 의원발의 건수 = 924 - 527 - 23 = 374

2011년 의원발의 건수 = 486

374+486 = 860, 2014년이 더 크다. → 옳다.

답 : ⑤

문 19. 다음 <표>는 섬유수출액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섬유수출액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상위 10개국의 섬유수출액 현황(2010년)  
(단위 : 억달러, %)

구분 순위	국가	섬유			전년대비 증가율
			원단	의류	
1	중국	2,424	882	1,542	21.1
2	이탈리아	1,660	671	989	3.1
3	인도	241	129	112	14.2
4	터키	218	90	128	12.7
5	방글라데시	170	13	157	26.2
6	미국	169	122	47	19.4
7	베트남	135	27	108	28.0
8	한국	126	110	16	21.2
9	파키스탄	117	78	39	19.4
10	인도네시아	110	42	68	20.2
세계 전체		6,085	2,570	3,515	14.6

<표 2> 한국의 섬유수출액 현황(2006 ~ 2010년)  
(단위 : 억달러, %)

구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섬유	원단	127 (8.2)	104 (4.4)	104 (4.2)	90 (4.4)
의류		50 (2.5)	19 (0.6)	17 (0.5)	14 (0.4)	16 (0.5)
총액		177 (5.0)	123 (2.1)	121 (2.0)	104 (2.0)	126 (2.1)

\* 괄호 안의 숫자는 세계 전체의 해당분야 수출액에서 한국의 해당분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보 기>

- ㄱ. 2010년 한국과 인도의 섬유수출액 차이는 100억달러 이상이다.
- ㄴ. 2010년 세계 전체의 섬유수출액은 2006년의 2배 이하이다.
- ㄷ. 2010년 한국 원단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과 의류수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차이는 10%p 이상이다.
- ㄹ. 2010년 중국의 의류수출액은 세계 전체 의류수출액의 50% 이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 전년대비 증가율 → <폭과 율>, 전체가 주어짐  
<표2> 분모동일 방향↓  
<표1>과 <표2>의 2010년 정보는 동일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한국과 인도의 섬유수출액 차이  
241-126 = 115(억) → 100억 달러 이상 차이난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의류의  $\frac{\text{중국}}{\text{전체}} = \frac{1542}{3515} < 50\% \rightarrow$  옳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답 : ④

문 20. 다음 <표>는 2014년 '갑'국 지방법원(A ~ E)의 배심원 출석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2014년 '갑'국 지방법원(A ~ E)의 배심원 출석 현황  
(단위: 명)

지방 법원	구분 소환인원	송달 불능자	출석취소 통지자	출석의무자	
				( )	출석자
A	1,880	533	573	( )	411
B	1,740	495	508	( )	453
C	716	160	213	343	189
D	191	38	65	88	57
E	420	126	120	174	115

\* 1) 출석의무자 수 = 소환인원 - 송달불능자 수 - 출석취소통지자 수

2) 출석률(%) =  $\frac{\text{출석자 수}}{\text{소환인원}} \times 100$

3) 실질출석률(%) =  $\frac{\text{출석자 수}}{\text{출석의무자 수}} \times 100$

<보 기>

- ㄱ. 출석의무자 수는 B지방법원이 A지방법원보다 많다.
- ㄴ. 실질출석률은 E지방법원이 C지방법원보다 낮다.
- ㄷ. D지방법원의 출석률은 25% 이상이다.
- ㄹ. A ~ E지방법원 전체 소환인원에서 A지방법원의 소환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출석의무자 = 소환인원 - 송달불능자 - 출석취소 통지자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이 아닌 가공)

A지방법원 = 1880-533-573

B지방법원 = 1740-495-508

소환인원은 140명 많은데, 빠지는값은 140보다 적다.

→ A지방법원이 더 많다. → 옳지 않다.

①, ②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ㄴ (단순 확인)

실질출석률 =  $\frac{\text{출석자}}{\text{출석의무자}}$

E =  $\frac{115}{174}$ , C =  $\frac{189}{343}$

E가 더 크다. → 옳지 않다.

③, ④번 선지 소거

답 : ⑤

문 21. 다음은 2011 ~ 2014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에 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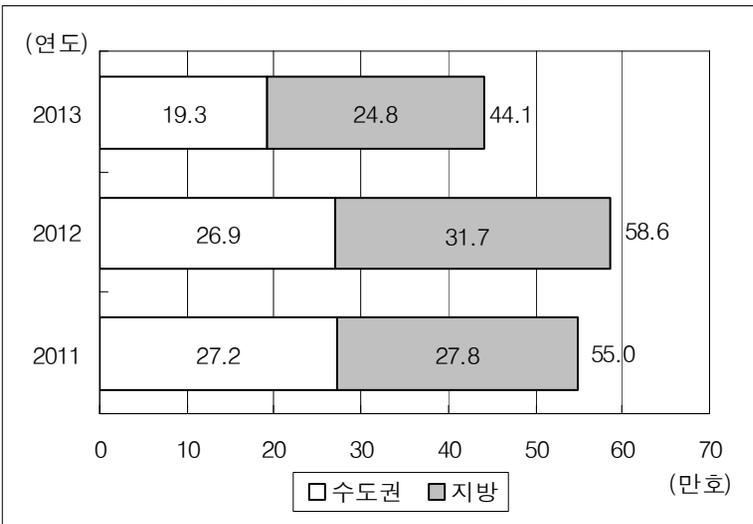
- 2014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전국 51.5만호(수도권 24.2만호, 지방 27.3만호)로 2013년(44.1만호) 대비 16.8% 증가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37.4만호)에 비하여 증가한 것이지만, 2014년의 인허가 실적은 2011년 55.0만호, 2012년 58.6만호, 2013년 44.1만호 등 3년평균(2011 ~ 2013년, 52.6만호)에 미치지 못하였다.
- 2014년 아파트의 인허가 실적(34.8만호)은 2013년 대비 24.7% 증가하였다. 아파트외 주택의 인허가 실적(16.7만호)은 2013년 대비 3.1%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감소하면서 3년평균(2011 ~ 2013년, 18.9만호) 대비 11.6% 감소하였다.
- 2014년 공공부문의 인허가 실적(6.3만호)은 일부 분양물량의 수급 조절에 따라 2013년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3년평균(2011 ~ 2013년, 10.2만호) 대비로는 38.2% 감소하였다. 민간부문(45.2만호)은 2013년 대비 25.2% 증가하였으며, 3년평균(2011 ~ 2013년, 42.4만호) 대비 6.6% 증가하였다.
- 2014년의 소형(60㎡이하), 중형(60㎡초과 85㎡이하), 대형(85㎡초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3년 대비 각각 1.2%, 36.4%, 4.9% 증가하였고, 2014년 85㎡이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의 비중은 2014년 전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의 약 83.5%이었다.

①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및 증감률

(단위 : 만호, %)

구분	2013년	3년평균 (2011 ~ 2013)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3년평균 대비 증감률	
전국	44.1	52.6	51.5	16.8	-2.1
수도권	19.3	24.5	24.2	25.4	-1.2
지방	24.8	28.1	27.3	10.1	-2.8

② 2011 ~ 2013년 지역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③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및 증감률

(단위 : 만호, %)

구분	2013년	3년평균 (2011 ~ 2013)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3년평균 대비 증감률	
영구.국민	2.7	2.3	2.6	-3.7	13.0
공공	3.1	2.9	3.6	16.1	24.1
매입.전세	3.8	3.4	3.4	-10.5	0.0

④ 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및 증감률

(단위 : 만호, %)

구분	2013년	3년평균 (2011 ~ 2013)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3년평균 대비 증감률	
아파트	27.9	33.7	34.8	24.7	3.3
아파트외	16.2	18.9	16.7	3.1	-11.6

⑤ 건설 주체별.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및 증감률

(단위 : 만호, %)

구분	2013년	3년평균 (2011 ~ 2013)	2014년			
			전년대비 증감률	3년평균 대비 증감률		
건설 주체	공공부문	8.0	10.2	6.3	-21.3	-38.2
	민간부문	36.1	42.4	45.2	25.2	6.6
규모	60㎡이하	17.3	21.3	17.5	1.2	-17.8
	60㎡초과 85㎡이하	18.7	21.7	25.5	36.4	17.5
	85㎡초과	8.1	9.6	8.5	4.9	-11.5

<문제 유형>

필요 형

-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 ① = 지역역별 인허가 실적 (13~14)
- ② = 지역역별 인허가 실적 (11~13)
- ③ = 공공임대 주택 공급실적
- ④ = 유형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 ⑤ = 주체,규모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관점의 적용>

2014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 ①  
 2014년의 인허가 실적은 2011년 55.0만호, = ②  
 아파트외 주택의 인허가 실적 = ④  
 공공부문의 인허가 실적(6.3만호)은 일부 분양물량의 수급 조절에 따라 2013년 대비 21.3% 감소하였으며 = ⑤

답 : ③

문 22. 다음 <표>는 '갑'국의 주택보급률 및 주거공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의 주택보급률 및 주거공간 현황

연도	가구수 (천가구)	주택보급률 (%)	주거공간	
			가구당(m <sup>2</sup> /가구)	1인당(m <sup>2</sup> /인)
2000	10,167	72.4	58.5	13.8
2001	11,133	86.0	69.4	17.2
2002	11,928	96.2	78.6	20.2
2003	12,491	105.9	88.2	22.9
2004	12,995	112.9	94.2	24.9

\* 1) 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가구수}} \times 100$

2) 가구당 주거공간(m<sup>2</sup>/가구) =  $\frac{\text{주거공간 총면적}}{\text{가구수}}$

3) 1인당 주거공간(m<sup>2</sup>/인) =  $\frac{\text{주거공간 총면적}}{\text{인구수}}$

<보 기>

- ㄱ. 주택수는 매년 증가하였다.
- ㄴ. 2003년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가구수는 2002년보다 증가하였다.
- ㄷ. 2001 ~ 2004년 동안 1인당 주거공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01년이다.
- ㄹ. 2004년 주거공간 총면적은 2000년 주거공간 총면적의 2배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주택수 = 가구수 × 주택보급률  
 주거공간 총면적 = 가구수 × 가구당 주거공간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주택수 = 가구수 × 주택보급률

가구수와 주택보급률 모두 매년 증가하였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2004년 = 12,995 × 94.2

2000년 = 10,167 × 58.5 × 2

→ 안보인다. 가공하자

2004년 = 130 × 942

2000년 = 102 × 585 × 2 = 204 × 585

→ 안보인다. 가공하자

2004년 = 650 × 94.2 × 2 = 650 × 188.4

2004년 = 188.4 × 650

2000년 = 204 × 585

→ 안보인다. 가공하자

2004년 = 188.4 × 65

2000년 = 15.6 × 585

→ 2004년이 더 크다.

옳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23. 다음 <정보>와 <표>는 2014년 A ~ E기업의 기본생산능력과 초과생산량 및 1 ~ 3월 생산이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기본생산능력이 가장 큰 기업과 세 번째로 큰 기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 보>

- 각 기업의 기본생산능력(개/월)은 변하지 않는다.
- A기업의 기본생산능력은 15,000개/월이고 C기업과 E기업의 기본생산능력은 동일하다.
- B, C, D기업의 경우 2014년 1 ~ 3월 동안 초과생산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 E기업의 경우 2014년 3월에 기본생산능력에 해당하는 생산량 이외에 기본생산능력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생산량이 발생하였다.
- 생산 참여기업의 월 생산량  
= 기본생산능력에 해당하는 월 생산량 + 월 초과생산량

<표> 2014년 1 ~ 3월 생산이력

구 분	1월	2월	3월
생산 참여기업	B, C	B, D	C, E
손실비	0.0	0.5	0.0
총생산량(개)	23,000	17,000	22,000

※ 해당월 총생산량  
= 해당월 '생산 참여기업의 월 생산량'의 합 × (1 - 손실비)

	가장 큰 기업	세 번째로 큰 기업
①	A	B
②	A	D
③	B	D
④	D	A
⑤	D	B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정보>

A = 15,000  
C = E  
E의 경우 3월에는 1.2배

<표>

B+C = 23,000  
(B+D)×0.5 = 17,000  
C+1.2E = 22,000

<관점의 적용>

일반적인 풀이 = 연립방정식을 풀어낸다

재미난 풀이 →

C와 E의 생산량은 같다.  
그런데 보기에서요구하는 것은 1등과 3등이다.  
즉, C와 E는 4,5등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A,B,D에서 1,2,3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2월의 조건을 보면 B와 D의 평균이 17,000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B 또는 D에서 1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개념으로 B와 C의 점수가 23,000인데, 이것을 평균으로 생각하면, B와 C가 11,500이라는 평균을 지녔을 것이다.  
만약, B가 1등이라면 C의 점수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또한, 만약 B가 2등이라면 15,000점을 넘어야하는데, 이경우에도 C의 점수가 매우 낮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3월의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다.  
즉, 1등은 D이고, 3등은 B가 된다.  
(※ 실전에서 이런 것이 떠올라야할까?)

답 : ⑤

문 24. 다음 <표>는 '가'국의 PC와 스마트폰 기반 웹 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 2014년 1월 동안 매월 이용률 상위 5종 웹 브라우저의 이용률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PC 기반 웹 브라우저

(단위: %)

웹 브라우저 종류 \ 조사시기	2013년			2014년
	10월	11월	12월	1월
인터넷 익스플로러	58.22	58.36	57.91	58.21
파이어폭스	17.70	17.54	17.22	17.35
크롬	16.42	16.44	17.35	17.02
사파리	5.84	5.90	5.82	5.78
오페라	1.42	1.39	1.33	1.28
상위 5종 전체	99.60	99.63	99.63	99.64

\* 무응답자는 없으며, 응답자는 1종의 웹 브라우저만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함.

<표 2> 스마트폰 기반 웹 브라우저

(단위: %)

웹 브라우저 종류 \ 조사시기	2013년			2014년
	10월	11월	12월	1월
사파리	55.88	55.61	54.82	54.97
안드로이드 기본 브라우저	23.45	25.22	25.43	23.49
크롬	6.85	8.33	9.70	10.87
오페라	6.91	4.81	4.15	4.51
인터넷 익스플로러	1.30	1.56	1.58	1.63
상위 5종 전체	94.39	95.53	95.68	95.47

\* 무응답자는 없으며, 응답자는 1종의 웹 브라우저만을 이용한 것으로 응답함.

- ① 2013년 10월 전체 설문조사 대상 스마트폰 기반 웹 브라우저는 10종 이상이다.
- ② 2014년 1월 이용률 상위 5종 웹 브라우저 중 PC 기반 이용률 순위와 스마트폰 기반 이용률 순위가 일치하는 웹 브라우저는 없다.
- ③ PC 기반 이용률 상위 5종 웹 브라우저의 이용률 순위는 매월 동일하다.
- ④ 스마트폰 기반 이용률 상위 5종 웹 브라우저 중 2013년 10월과 2014년 1월 이용률의 차이가 2%p 이상인 것은 크롬뿐이다.
- ⑤ 스마트폰 기반 이용률 상위 3종 웹 브라우저 이용률의 합은 매월 90%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 1>, <표 2> 분모동일방향 ↓  
나와있는 정보는 1~5등까지 뿐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13년 10월 스마트폰의 경우 1~5등의 합 = 94.39%

6등 이후의 값을 최대(1.3)로 생각해보자

10종이상이 아닌 것이 가능한지 봐야하므로,

9등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94.39 + 1.3 \times 4 = 99.59$

→ 100%를 채울 수 없다. 10종이 필요하다. 옳다.

답 : ①

문 25.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이후 인구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지역별 인구분포(1648년)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한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인구	1,532	96	81	174	432	425	54	55	146	69
비중	100.0	6.3	5.3	11.4	28.2	27.7	3.5	3.6	9.5	4.5

<표 2> 지역별 인구지수

연도	지역									
	한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164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53	181	793	535	276	391	724	982	868	722	
1789	197	793	499	283	374	615	1,033	888	1,009	
1837	213	812	486	253	353	589	995	584	1,000	
1864	211	832	505	251	358	615	1,033	598	1,009	
1904	200	831	445	216	261	559	695	557	1,087	

\* 1) 인구지수 =  $\frac{\text{해당연도 해당지역 인구}}{\text{1648년 해당지역 인구}} \times 100$

2) 조선 후기 이후 전체 인구는 9개 지역 인구의 합임.

<보 기>

- ㄱ. 1753년 강원 지역 인구는 1648년 전라 지역 인구보다 많다.
- ㄴ. 1789년 대비 1837년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평안이다.
- ㄷ. 1864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이다.
- ㄹ. 1904년 전체 인구 대비 경기 지역 인구의 비중은 함경 지역 인구의 비중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1>의 분모동일방향 →, 전체가 주어짐

<표2>의 분모동일방향 ↓

<표2>의 분모는 <표1>의 인구값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1753년의 강원인구 = 1648의 강원 × 1753 강원도 지수

1648년의 전라인구

(※ 비중 또는 인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비중을 선택

→ 강원인구 =  $3.5 \times 724$

→ 전라인구 =  $28.2 \times 100$

→  $28 = 4 \times 7$  이므로, 전라가 더 크다.

(※ 안보이면 가공하자.)

옳지 않다.

①, ②, ④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1904년의 전체인구 대비~ 이므로, 분모가 동일하다.

분자만 생각하자

(※ 비중 또는 인구 중 선택이 가능하다)

경기 지역 =  $5.3 \times 831$

함경 지역 =  $4.5 \times 1087$

→ 경기지역이 더 작다. → 옳지 않다.

(※ 안 보이면 인구를 이용해보자.)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 중 선택

답 : ③